

자료

문서자료

이미지자료

미디어자료

카드뉴스

문서자료

[매일노동뉴스] KTX 여승무원 잇따른 연행

작성일 2006.05.15

작성자 여성위

Views 2172

Attachment파일 다운로드 KTX2.jpg



KTX 여승무원 잇따른 연행, 노동계 '열 받았다'

"교섭 회피해 오던 철도공사의 답변은 '공권력'"

KTX 여승무원 농성장에 공권력이 투입돼 승무원 연행 사태가 벌어지자 이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 11일 경찰은 KTX승무원 농성장인 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에 투입돼 농성중인 60여명의 조합원을 전원 연행한 바 있다. 현재 연행된 조합원들은 지난 13일 모두 풀려나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사무실에 집결해 있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 10층에서 농성중인 KTX승무원들에 대한 연행도 동시에 시도됐으나 KTX승무원들이 인권 위와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 시장 후보 선거운동본부 사무실 농성을 자진해산해 무력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14일 오전 6시30분께 열린우리당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여 온 KTX 여승무원 37명 전원이 연행돼 용산, 강동, 광진, 성동, 송파경찰서 등 5개 경찰서에서 분산 조사를 받고 있다.

<자료사진>

이에 철도노조는 지난 12일 긴급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경찰의 공권력 투입을 강력 규탄했다. 노조는 "우리는 파업에 돌입한 지난 3월1일부터 수십번에 걸쳐 공사쪽에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촉구했지만 공사쪽은 열차승무 조합원들이 KTX관광레저로 가는 것 이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며 교섭을 회피해 왔다"며 "'공권력'이 바로 공사쪽의 답변"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또 "특 하면 들이대는 경찰의 군화발이 지긋지긋하기도 하지만, 변할 줄 모르는 정부와 철도경영진에 대해 우리는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낀다"며 "KTX 열차승무 조합원 농성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 및 강제연행에 대해 비장한 각오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또 이날 오전 11시 서울역광장에서 200여명의 노조 간부들이 모인 가운데 경찰의 공권력 투입과 철도공사의 태도를 규탄하기도 했다.

공공연맹도 지난 13일 서울역광장에서 'KTX열차승무지부 투쟁승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철도공사와 정부의 태도를 규탄했다. 연맹은 "73일째 농성을 하며 철도공사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승무원들에게 철도공사는 단 한차례도 성실하게 사태 해결을 위한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며 "세간의 눈총을 피하기 위해 대화에 응하는 시늉만 일삼던 철도공사 이철 사장은 급기야 공권력을 이용해 여성 조합원들을 모두 경찰에 끌려가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오는 15일이면 철도유통의 정리하고 통보에 따라 280여명의 KTX 승무원들은 정리하고 되는 실정에 놓여있다"며 "철도공사는 장기화되고 있는 승무원 파업을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부실 자회사인 KTX 관광레저로 사업자를 바꿔 승무사업을 실시하려는 공기업으로서의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연맹은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를 법과 질서 운운하며 어떻게든 정리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5·31 지방선거에서 노동자들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지혜 기자 [sagesse@labortoday.co.kr](mailto:sagesse@labortoday.co.kr)

Update

Delete

List

민주노총 노동자대표총연맹

민주노총 가맹조직 사이

부설기관

민주노총 소개

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민주노총 지역본부 사이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Tel : (02) 2670-9100 | Fax : (02) 2635-1134  
고유번호 : 107-82-08139 | Email : [kctu@kctu.org](mailto:kctu@kctu.org)  
민주노총 노동상담 1577-2260